

## 한국판 제로섬 신념 척도 타당화 연구

정 주 리<sup>†</sup>

이 연구는 Rózycka-Tran, Boski, Wojciszke(2015)이 Belief in a Zero-Sum Game (BZSG) 모델을 토대로 개발한 제로섬 신념 척도를 국내 성인들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508명의 성인(대학생 252명, 일반성인 256명)을 대상으로 제로섬 신념, 사회적 신뢰,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 성향, 사회비교 지향성 척도로 구성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판 제로섬 신념은 단일요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신뢰도 분석 결과, 양호한 내적 일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판 제로섬 신념 척도는 사회적 신뢰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로섬 신념 척도는 수직적 개인주의와 수직적 집단주의 문화 성향과 정적 관계를 나타냈고, 수평적 집단주의 문화 성향과는 부적 관계, 수평적 개인주의와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회비교 지향성과는 정적 관계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집단이나 일반 성인 집단이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국내에서 제로섬 신념과 관련된 많은 연구를 촉진할 수 있음을 밝혔고, 제로섬 신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제로섬 신념으로 인해 나타날 결과들을 밝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제로섬 신념, 사회적 신뢰, 사회경제적 지위,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 성향, 사회비교 지향성

---

<sup>†</sup> 교신저자 : 정주리,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E-mail: jjoeng@jnu.ac.kr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및 세계관은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주어진 자원을 타인과 함께 배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어떤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에게도 이득이 되면서 타인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호이익(win-win) 방법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과, 한 사람의 이득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 제로섬(zero-sum) 신념을 가진 사람은 상대를 대하는 태도에서 큰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제로섬이란,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자원의 양이 한정됐다고 믿어,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로 경제주체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게임이론(von Neumann & Morgenstern, 1944)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즉, 한정된 자원을 놓고 누군가 이득을 보면, 다른 누군가는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것이다. 이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행복이나 권리와 같이 추상적인 개념에도 적용될 수 있고(구자영, 서은국, 2007), 자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질수록 타인이나 외집단(out-group)에 대해 어떻게 느끼느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신념에 더욱 강한 영향을 받게 된다(Forsyth, 1999; Sherif, 1966).

행복에 대한 내재이론(구자영, 서은국, 2007), 집단 갈등에 관한 도구 모델(Instrumental Model of Group Conflict; Esses, Jackson, & Armstrong, 1998), 현실적 갈등 이론(Realistic Conflict theory; Forsyth, 1999; Sherif, 1966) 등은 이러한 제로섬 신념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먼저, 행복에 대한 내재이론이란 나와 타인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총량이나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총량이 한정되어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한다(구자영, 서은국, 2007). 실제로 행복의 총량이 유한한지, 무한한지는 알 수 없으나 행복의 총량이 한정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비교에 민감하고, 지나친 경쟁심을 가지며, 다른 사람들보다 덜 행복하며, 세상이 불공정하다는 믿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자영, 서은국, 2007).

또한, 집단 갈등에 관한 도구 모델에서는 자원이 희소하고, 불공정하게 배분되며, 위계적인 사회 구조를 선호할수록 집단 간 갈등이 심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Esses et al., 1998; Esses, Dovidio, Danso, Jackson, & Semanya, 2005). 집단 간 경쟁을 지각하게 되면 제로섬 신념이 활성화되고, 경쟁에서 질 수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커짐으로써 외집단의 경쟁력을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내집단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또는 아예 경쟁을 회피하는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Esses et al., 1998).

현실적 갈등 이론 역시 제로섬 신념과 관련이 있다. 현실적 갈등 이론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으로 인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Sherif, 1966). 사람들은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경쟁상대에 대한 적개심을 느끼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며, 이는 집단 간 갈등으로 귀결될 수 있다(Sherif, 1966). 타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두 집단의 이익이 양립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기인하며, 한 집단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들을 갖게 되며, 필연적으로 다른 집단은 그 자원을 소유할 수 없는 제로섬 현상으로 인해 나타난다는 것이다(Forsyth, 1999).

최근 Rózycka-Tran, J., Boski, P & Wojciszke,

B. (2015)이 Belief in a Zero-Sum Game(BZSG) 모델을 개발하여 제로섬 신념이 타인에 대한 태도 및 차별 행동, 갈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한국이 포함되지 않은 37개국에서 제로섬 신념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인 수준에서 제로섬 신념은 대인관계 신뢰, 사회적 교환에 대한 만족감, 자아존중감,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적 수준에서는 제로섬 신념이 GDP 및 개인주의와 부적 관계이며 사회적 냉소주의와 강한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óżycka-Tran et al., 2015).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제로섬 신념은 상대방 행동에 대한 적대적인 귀인과 관련되고,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빠르게 최종 결론을 얻고자 하는 인지적 종결 욕구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로섬 신념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지배력을 선호하고 정치적으로 다른 집단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을 용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earon, Götz, Serapio-García, & Good, 2021). 그뿐만 아니라, 제로섬 신념은 타인에 대한 낮은 신뢰,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민주적 과정을 타협하거나 폭력을 사용할 의향과도 관련이 있으며, 경제적 의사 결정과 관련해서 공동체를 위한 자원 배분보다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원을 배분하려는 경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earon et al., 2021).

이처럼 제로섬 신념은 타인이나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태도를 유발하며, 타인을 적대시함으로써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키운다. 다시 말해, 가치 있는 자원의 양이 한정적이라고 믿을수록 자원을 둘러싼 개인 간,

집단 간 갈등은 커지게 되며, 누군가에게 자원을 배분하려는 시도는 자칫 다른 이에게는 타인의 이득으로 인해 자신은 손해나 피해를 보게 된다고 인식하게 되어 강한 저항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자원의 양을 한정적으로 인식하는 제로섬 신념으로 인해 개인 간, 집단 간 갈등이 두드러지는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20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별 간 갈등은 역사적으로 구조적 성차별을 시정하고 성별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과 제도가 도입되고 적극적으로 시행되면서 오히려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류연규, 김영미, 2019; 유주연, 안현의, 2020). 이러한 갈등은 희소한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권력관계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대립에서 발생한다(서문기, 2004). 또한, 최근의 세대 갈등 역시 경제적 이해를 둘러싼 문제에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박길성, 2011).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이 좋은 일자리 배분을 포함하여 세대 간 자원 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과 노인 세대와 대립 가능성을 더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유석, 오유진, 문유진, 2015). 소수집단을 향한 편견 역시 제로섬 신념과 관련된 모습을 나타냈다. 예를 들어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현실적 갈등 인식 요인은 우리나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소수집단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양계민, 2009). 즉, 문화적·인종적 소수집단이 우리 사회의 한정된 자원을 빼앗아 간다고 청소년들이 인식할수록 소수집단에 대해 더욱 부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제로섬 신념에 기반한 현실적 갈등 인식 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지 및 정서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계민, 2010).

제로섬 신념은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 정신건강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국을 포함한 35개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제로섬 신념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제로섬 신념은 삶의 만족도 및 긍정 정서와는 부적 관계, 부정 정서와는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Rózycka-Tran et al., 2019). 다른 연구에서도 행복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 누군가 행복해진다면 다른 사람이 덜 행복해지거나, 지금 행복하면 나중에 덜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제로섬 신념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hin, & Kim, 2018). 또한, 제로섬 신념은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외로움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orawski, 2018).

이처럼 제로섬 신념은 타인에 대한 태도 및 갈등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건강과도 관련성이 높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여 진행되는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이러한 개념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선행 연구자들은 제로섬 신념이 개인의 정신건강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개인 간, 집단 간 관계에 있어서 협력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제로섬 신념에 관한 연구가 더욱 촉진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Fearon et al., 2021).

이에 앞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Rózycka-Tran 등(2015)이 개발

한 제로섬 신념 척도를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국판으로 타당화하고자 한다. 비록 Rózycka-Tran 등(2019)이 35개국에서 제로섬 신념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조사하면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공동연구자를 통해 한국어로 번안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이때 이 척도를 단순히 한국어로 번안만 하였을 뿐 국내에서 타당화하는 과정은 거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번안된 제로섬 신념 척도의 내용 타당도를 검토하고, 제로섬 신념과 관련 변인들을 함께 측정하여 한국판 제로섬 신념 척도의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판 제로섬 신념 척도 타당화를 위해 Rózycka-Tran 등(2015)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변인 중 사회적 신뢰,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 경향,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신뢰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공정하고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신뢰가 높을수록 개인 또는 집단 간 협동과 상호 신뢰가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ózycka-Tran et al., 2015).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신뢰는 제로섬 신념을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ózycka-Tran et al., 2015).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사회적 신뢰와 제로섬 신념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Rózycka-Tran 등(2015)의 연구에서는 단일요인으로 사회적 신뢰를 측정하였지만, 사회적 신뢰를 개인이 타인에 대해 가지는 일반적 신뢰,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서로 도우려 한다는 이타성 인식,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용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한다는 공정성 인식을 포함하여 살펴 보아야 한다는 선행연구자들의 주장에 따라 (Reeskens, & Hooghe, 2008)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일반적 신뢰, 이타성 인식, 공정성 인식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Rózycka-Tran 등(2015)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이 제로섬 신념을 부적으로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제로섬 신념을 덜 갖고,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인식할수록 제로섬 신념을 더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거나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인식할수록 타인을 공존의 대상보다는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쉽고, 타인의 이득으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Rózycka-Tran 등(2015)은 시민지수(citizen score indices)를 산출하여 한 차원의 양극단으로 국가별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 정도를 파악하였고, 이들의 연구에서 제로섬 신념은 개인주의 문화와 부적 관계(즉, 집단주의 문화와 정적 관계)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개인주의 문화가 우세한 국가의 사람들은 제로섬 신념을 덜 나타내고, 집단주의 문화가 우세한 국가의 사람들일수록 제로섬 신념을 더 나타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여러 국가의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보고하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 성향을 파악하여 제로섬 신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Triandis(1995)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단일문화권에서 개인 차원의 심리적 속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집단주의 성향은 주로 자신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며, 개인의 목표보다는 공동체의 목표에 우선권을 두는 경향을 나타내며, 개인주의 성향은 개인을 주로 집단과 독립된 존재로 간주하며 개인의 선호나 필요, 권리를

우선시하는 특징을 가진다(Triandis, 1995). 한편, Rózycka-Tran 등(2015)은 국가 수준에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를 한 차원의 양극단으로 바라보았지만, 개인에 따라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성향 중 한 성향이 뚜렷할 수도 있지만, 두 성향 다 높거나 낮을 수도 있기에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동일한 차원의 양극단으로 보기보다는 각기 다른 차원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한규석, 1996).

덧붙여 대인관계에서 서열이나 위계질서를 강조하는가, 아니면 평등성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집단주의도 수평적 집단주의와 수직적 집단주의로, 개인주의도 수평적 개인주의와 수직적 개인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Singelis, Triandis, Bhawuk, & Gelfnad, 1995). 다시 말해 수평적 집단주의와 수직적 집단주의는 모두 개인을 집단의 일원으로 주로 인식하지만,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집단 구성원 간에 불평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집단 구성원 간의 평등함을 강조한다(Singelis et al., 1995). 그러나 수평적 개인주의나 수직적 개인주의에서는 개인을 자율적이고 집단과 독립적인 존재로 주로 인식하지만,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개인들 간 불평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개인들 간의 평등함을 더 강조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위계를 선호하는 남성들이 성별과 관련하여 제로섬 믿음을 더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Ruthig, Kehn, Gamblin, Vanderzanden, & Jones, 2017), 다른 연구에서도 위계를 중요시하는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남성일수록 한정된 자원을 놓고 다른 그룹과 경쟁해야 한다는 인식, 즉 제로섬 믿음을 바탕으로 현재 여권

신장이 남성에게 역차별을 가져온다는 인식을 더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osson, Vandello, Michniewicz, & Lenex, 2012). 이처럼 제로섬 신념이 높은 사람들은 서열이나 위계질서에 더 민감할 가능성이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만의 분류가 아닌, 수직적/수평적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4차원으로 제로섬 신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Rózycka-Tran 등(2015)의 연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로섬 신념을 살펴본 다른 연구들에서는 제로섬 신념이 높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많이 비교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기에(구자영, 서은국, 2007; Borawski, 2018; Shin & Kim, 2018)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 지향성도 관련 변인으로 포함시켰다. 사회비교 지향성이란,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가 높아서 자기성찰 지향적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민감하고 타인과 자주 비교하는 성향을 나타낸다(Gibbons, & Buunk, 1999).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누군가의 이득을 다른 사람의 손실로 인식하는 제로섬 신념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에 민감하고, 타인과 자신을 자주 비교하는 사회비교 지향성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종합하면, 이 연구에서는 Rózycka-Tran 등(2015)의 BZSG 모델에 기반하여 개발된 제로섬 신념 척도를 국내 성인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로섬 신념 척도의 구조를 파악하고, 신뢰도를 검증한 후, 사회적 신뢰,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 성향, 사회비교 지향성과 제로섬 신념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제로섬 신념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여 제로섬 신념과 관련된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타당도 검증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로섬 신념이 주관적 사회경제적 수준과 부적 관계, 사회비교 경향성과는 정적 관계를 나타낼 것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제로섬 신념은 사회적 신뢰(일반적 신뢰, 이타성 인식, 공정성 인식)와 부적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고, 위계와 불평등을 수용하는 수직적 집단주의와 수직적 개인주의와는 정적 관계를 나타내며, 집단 구성원들 간 평등을 중요시하는 수평적 집단주의와는 부적 관계를 나타내어 수렴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개인을 자율적 존재로 인식하며 개인 간 평등을 중요시하는 수평적 개인주의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나와 타인, 혹은 내집단과 외집단 간의 경쟁을 필연적으로 인식하는 제로섬 신념과의 관련성이 적을 것으로 예측하여 변별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 방 법

### 연구대상

먼저, 이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생명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승인번호: 1040198-210108-HR-001-03). 온라인 리서치 회사에 설문조사를 의뢰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을 읽고 자발적으로 연구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고,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8명이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244명(48%), 여자 264명(52%)이 참여하였고, 연구대상자 중 대학생이

252명(49.6%), 대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이 256명(50.4%)이었다. 거주지역으로 보면 서울 134명(26.4%), 경기 180명(35.4%), 경상 103명(20.3%), 충청 44명(8.7%), 전라도와 제주 39명(7.7%), 강원 8명(1.6%)이 참여하였다. 만 나이는 최소 19세에서 최대 64세로 평균 32.63세( $SD=13.26$ )이었다. 세부적으로 20대가 272명(53.5%), 30대가 65명(12.8%), 40대가 73명(14.4%), 50대가 81명(15.9%), 60대가 17명(3.3%)으로 나타났다.

#### 측정도구

##### 제로섬 신념

한국어로 번안된 제로섬 신념(BZSG) 척도는 총 8문항이다. Rózycka-Tran 등(2015)은 본래 폴란드 판으로 12개의 문항으로 개발하였으나, 37개국(한국은 포함되지 않음) 6,138명의 대학생を対象으로 척도 타당도를 살펴보고, 개선하면서 8문항으로 단축되었다. 문항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매우 동의한다’까지 7점 척도로 측정하게 되어 있다. 척도 타당화를 위해 원개발자인 Rózycka-Tran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며, 원척도와 함께 Rózycka-Tran 등(2019)의 연구를 위해 번안된 문항을 받았다. 번안된 문항을 미국에서 상담심리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한국에서 상담심리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인 2인이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여 원문의 내용이 더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일부 번안 문항 내용을 수정하였다. 8개의 문항 내용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Rózycka-Tran 등(2015)이 보고한 신뢰도는 26개 국가에서 .80 이상, 5개 국가에서 .85 이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87이다.

##### 사회적 신뢰

사회적 신뢰는 Reeskens와 Hooghe(2008)가 European Social Survey(ESS)에서 타자에 대한 일반적 신뢰를 알아보기 위해 개발한 3문항을 전유정(2016)이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점: 전혀 신뢰할 수 없다, 7점: 매우 신뢰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합니까?” (1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7점: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만 있다면 당신을 이용하려 합니까? 아니면 당신을 공정하게 대하는 편입니까?” (1점: 나를 이용한다, 7점: 나를 공정하게 대한다)로 각각 7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전유정(2016)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64였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73이다.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기 위해 Rózycka-Tran 등(2015)이 사용한 것처럼 “당신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단일 문항을 제시하고 7점 Likert 척도(1: 평균보다 훨씬 낮다, 4: 평균 수준이다, 7: 평균보다 훨씬 높다)를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 성향

개인이 나타내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Singelis 등(1995)이 개발하고 김기범(1996)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2문항으로 개인주의, 집단주의 문화 성향뿐만 아니라 같은 문화 내에서 평등이나 경쟁 정도를 나타내는 수직성, 수평

성의 차원이 추가되어 있어서,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4가지 하위요인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다. 김기범(1996)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수직적 개인주의 .72, 수평적 개인주의 .75, 수직적 집단주의 .69, 수평적 집단주의 .81이었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수직적 개인주의 .67, 수평적 개인주의 .81, 수직적 집단주의 .71, 수평적 집단주의 .79이었다.

### 사회비교 지향성

사회비교 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Gibbons와 Buunk(1999)가 개발한 사회비교 지향성 척도(Iowa-Netherlands Comparison Orientation Measure: INCOM)을 양혜승(2015)이 번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래 INCOM은 타인과 성과(performance) 또는 능력(ability)을 비교하는 6개 문항, 의견(opinion)을 비교하는 5개 문항,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로섬 신념은 타인의 의견이나 생각보다는 실질적인 결과물의 분배와 관련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여겼고, 성과/능력 비교만을 활용하여 사회비교 지향성을 측정한 선행연구(양혜승, 2015)를 참고하여 의견 비교를 제외한, 성과/능력 비교에 해당하는 6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양혜승(2015)의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87이었다.

### 결 과

#### 탐색적 요인분석

Rózycka-Tran 등(2015)의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 없이, 확인적 요인분석을 바로 진행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508명의 자료를

표 1. 제로섬 신념 척도 문항 상관계수 및 기술통계값( $n=259$ )

	1	2	3	4	5	6	7	8
2	.60**							
3	.54**	.62**						
4	.21**	.27**	.37**					
5	.54**	.51**	.58**	.34**				
6	.56**	.75**	.63**	.32**	.61**			
7	.36**	.31**	.36**	.14**	.45**	.26**		
8	.43**	.54**	.52**	.31**	.51**	.62**	.41**	
평균	3.55	3.71	3.88	4.10	3.78	3.70	3.00	3.76
표준편차	1.26	1.32	1.22	1.14	1.23	1.31	1.27	1.21
왜도	-.31	-.24	-.38	-.52	-.24	-.27	.15	-.22
첨도	-.68	-.83	-.33	.09	-.45	-.66	-.76	-.54

\*  $p < .05$ , \*\*  $p < .01$



임의분할하여 259명의 자료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249명의 자료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최대우도법(maximum-likelihood)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고유치와 스크리 검정(scree test)을 고려하여 의미있는 요인 수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우선, 다변량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자 문항들의 첨도와 왜도 절대값을 살펴보았는데 표 1에 제시한 것처럼 모든 문항의 첨도와 왜도

절대값이 1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KMO (Kaiser-Meyer-Olkin) 측도와 Bartlett 검정을 통해 구형성 검증을 한 결과, KMO 적합성 지수 .892, Bartlett 검정 결과  $\chi^2(28)=928.068$ ,  $p=.000$ 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치 1을 기준으로 하고 스크리 검정 결과를 함께 고려했을 때, 1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단일 요인을 통해 설명되는 변량은 47.97%이었다. 탐색적

표 2. 제로섬 신념 척도 요인분석 결과

문항	탐색적 요인분석 (n=259)		확인적 요인분석 (n=249)	
	요인 부하량	문항 제거 시 내적 합치도	Rózycka-Tran 등(2015)	요인 부하량
1. 어떤 사람들의 성공은 대개 다른 누군가의 실패와 같다.	.69	.86	.53**	.69**
2. 어떤 사람이 더 부유해진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는 더 가난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81	.85	.76**	.83**
3. 인생은 어떤 사람들이 이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만들어져 있다.	.76	.85	.76**	.81**
4.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39	.88	.22**	.32**
5. 삶은 테니스 게임처럼 어떤 사람이 이기면 다른 사람들은 지게 되어 있다.	.72	.85	.68**	.76**
6. 어떤 사람들이 점점 가난해지는 것은 다른 누군가는 점점 부유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86	.84	.74**	.82**
7.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많은 것을 베풀면, 그 당사자는 결국 손해 보게 되어 있다.	.47	.88	.39**	.52**
8. 소수 사람들의 부는 다수의 희생으로 얻어진다.	.70	.85	.59**	.65**
아이젠값 분산(%)	3.84	47.97		

\*  $p < .05$ , \*\*  $p < .01$

요인분석 결과는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와 함께 표 2에 제시하였다.

#### 확인적 요인분석

Rózycka-Tran 등(2015)의 연구에서 8문항을 단일 요인으로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chi^2(40)=694.23$ ,  $p<.001$ , CFI=.952, RMSEA=.052, SRMR=.032~.09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무선 분할한 표본 249명의 자료를 가지고 단일요인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적합도는  $\chi^2(20)=29.427$ ,  $p=.080$ , CFI=.989, TLI=.985 RMSEA=.044(.000, .075), SRMR=.029로 나타나 Rózycka-Tran 등(2015)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단일 요인 구조가 자료에 적절하게 부합하였다. 그러나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문항 4의 요인부하량이 .39로 낮게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문항 4의 요인부하량이 .32로 다른 문항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이 문항은 Rózycka-Tran 등(2015)의 연구에서도 요인부하량이 .22로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Rózycka-Tran 등(2015)은 이 문항의 이론적 중요성과 요인부하량은 낮지만 유의한 수준임을 고려하여 척도에서 제외하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도 4번 문항을 제외하지 않고 포함시켰다.

#### 신뢰도 분석

전체 표본( $n=508$ )을 대상으로 전체 신뢰도 및 반분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87이었고, 반분 신뢰도 역시 .87로 나타나 신뢰도가 양호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타당도 분석

제로섬 신념 척도의 타당도 분석을 위해 사회적 신뢰,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 경향, 사회비교 지향성과 제로섬 신념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3에 제시한 것처럼 제로섬 신념은 전체적 사회적 신뢰( $r=-.08$ ,  $p=.073$ )와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신뢰 변인의 세부 영역을 살펴보았을 때, 일반적 신뢰( $r=-.08$ ,  $p=.074$ )와 타인의 이타성 인식( $r=-.02$ ,  $p=.731$ ) 역시 제로섬 신념과는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공정성 인식은 제로섬 신념과 부적 관계( $r=-.11$ ,  $p=.015$ )로 나타나 제로섬 신념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공정하게 대하기보다는 자신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 $r=-.01$ ,  $p=.812$ ) 역시 제로섬 신념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로섬 신념은 수직적 개인주의( $r=.22$ ,  $p=.000$ )와 수직적 집단주의( $r=.13$ ,  $p=.005$ ) 문화 경향성과는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평적 집단주의와는 부적 관계( $r=-.10$ ,  $p=.031$ ), 수평적 개인주의와는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07$ ,  $p=.111$ ). 또한, 제로섬 신념은 사회비교 지향성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9$ ,  $p=.000$ ). 즉, 제로섬 신념은 공정성 인식, 수직적 개인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와는 수렴타당도를 나타냈고, 수평적 개인주의와는 변별타당도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예측과 달리 사회적 신뢰, 일반적 신뢰, 이타성 인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ózycka-Tran 등(201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표 3. 연구변인 간 상관계수 및 기술통계값( $n=508$ )

	1	2	2-1	2-2	2-3	3	4-1	4-2	4-3	4-4	5
1. 제로섬 신념											
2. 사회적 신뢰	-.08										
2-1. 일반적 신뢰	-.08	.78**									
2-2. 이타성 인식	-.02	.83**	.44**								
2-3. 공정성 인식	-.11*	.81**	.47**	.52**							
3. 사회경제적 지위	-.01	.23**	.21**	.18**	.17**						
4-1. 수직적 개인주의	.22**	.17**	.12**	.05	.12**	.14**					
4-2. 수평적 개인주의	.07	.10*	.09	.04	.12**	.12**	.32**				
4-3. 수직적 집단주의	.13**	.34**	.31**	.23**	.28**	.07	.39**	.25**			
4-4. 수평적 집단주의	-.10*	.43**	.36**	.31**	.38**	.16**	.24**	.30**	.65**		
5. 사회비교 지향성	.29**	.11**	.12**	.10*	.04	.13**	.40**	.08	.26**	.13**	
평균	3.68	3.74	4.11	3.75	3.37	3.95	4.31	4.94	4.62	4.76	3.25
표준편차	.91	1.00	1.21	1.37	1.13	1.21	.71	.75	.72	.75	.81

\*  $p < .05$ , \*\*  $p < .01$ 

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표본을 대학생과 일반 성인으로 나누어 상관분석을 다시 한번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에 제시한 것처럼 대학생 집단에서는 사회적 신뢰( $r = -.19$ ,  $p = .003$ )와 사회적 신뢰의 하위 영역인 일반적 신뢰( $r = -.21$ ,  $p = .001$ ) 및 공정성 인식( $r = -.18$ ,  $p = .005$ )은 제로섬 신념과 부적 관계를 나타냈고, 타인의 이타성 인식( $r = -.06$ ,  $p = .364$ )과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 $r = -.09$ ,  $p = .153$ )은 제로섬 신념과 유의한 관련을 나타내지 못했으며, 수직적 개인주의( $r = .23$ ,  $p = .000$ )는 제로섬 신념과 정적 관계, 수평적 집단주의( $r = -.21$ ,  $p = .001$ )는 제로섬 신념과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수평적 개인주의

( $r = .04$ ,  $p = .515$ )와 수직적 집단주의( $r = .09$ ,  $p = .172$ )는 제로섬 신념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비교 지향성( $r = .28$ ,  $p = .000$ )은 제로섬 신념과 정적 관계로 나타났다.

일반 성인 집단에서는 대학생 집단과 달리, 전체 사회적 신뢰( $r = .01$ ,  $p = .917$ ) 및 하위 영역 모두( $r = .04$ ,  $p = .493$ ,  $r = .02$ ,  $p = .753$ ,  $r = -.05$ ,  $p = .423$ ) 제로섬 신념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그리고 대학생 집단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 $r = .06$ ,  $p = .359$ ) 역시 제로섬 신념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수직적 개인주의( $r = .22$ ,  $p = .001$ )는 대학생 집단과 마찬가지로 제로섬 신념과 정적 관련, 수평적 개인주의( $r = .10$ ,  $p = .098$ )는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학생 집단과 다르게 수직적 집단주의( $r = .16$ ,  $p = .01$ )가 제로섬 신념과 정

표 4. 대학생(n=252)과 일반 성인(n=256) 집단 내의 상관계수

	1	2	2-1	2-2	2-3	3	4-1	4-2	4-3	4-4	5
1. 제로섬 신념		.01	.04	.02	-.05	.06	.22**	.10	.16**	.01	.30**
2. 사회적 신뢰	-.19**		.79**	.86**	.84**	.29**	.22**	.16*	.43**	.48**	.17**
2-1. 일반적 신뢰	-.21**	.78**		.49**	.51**	.27**	.23**	.16*	.42**	.44**	.20**
2-2. 이타성 인식	-.06	.80**	.39**		.60**	.23**	.13*	.12	.31**	.33**	.13*
2-3. 공정성 인식	-.18**	.77**	.43**	.43**		.23**	.19**	.13*	.36**	.44**	.09
3. 사회경제적 지위	-.09	.15*	.15*	.12	.09		.20**	.10	.11	.22**	.19**
4-1. 수직적 개인주의	.23**	.02	.01	-.02	.06	.10		.26**	.48**	.41**	.50**
4-2. 수평적 개인주의	.04	.03	.02	-.04	.11	.15*	.36**		.32**	.36**	.06
4-3. 수직적 집단주의	.09	.22**	.20**	.13*	.19**	.06	.30**	.18**		.71**	.32**
4-4. 수평적 집단주의	-.21**	.38**	.28**	.30**	.32**	.12	.09	.25**	.57**		.21**
5. 사회비교 지향성	.28**	.02	.03	.06	-.06	.03	.34**	.13*	.23**	.05	

주. 대각선 하단은 대학생 집단이며, 대각선 상단은 일반 성인 집단임.

\* $p < .05$ , \*\* $p < .01$

적 관련이 있었고, 수평적 집단주의( $r = .01$ ,  $p = .820$ )는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비교 지향성( $r = .30$ ,  $p = .000$ )은 대학생 집단과 마찬가지로 정적 관계로 나타났다.

## 논 의

이 연구는 만 19세 이상 국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국판 제로섬 신념 척도를 타당화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509명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임의적으로 분할하여 각 표본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로섬 신념 척도는 Rózycka-Tran 등(2015)의 연구에서 보고한 것처럼 단일 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비록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4번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낮기는 했지만, 이는 Rózycka-Tran 등(2015)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낮게 나왔고 원칙도의 개발자들이 이 문항의 이론적 중요성과 유의성을 이유로 해당 문항을 삭제하지 않고 최종 척도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같은 이유로 한국판 제로섬 신념 척도에 8문항을 모두 포함하였다. 하지만 이 문항과 함께 낮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낸 7번 문항(“다른 사람들을 위해 많은 것을 베풀면, 그 당사자는 결국 손해보게 되어 있다”)은 누군가의 이익이 다른 누군가에게 손해임을 나타내는 다른 제로섬 신념 문항들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기에 후속 연구자들이 두 문항에 좀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한국판 제로섬 신념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았을 때, 전체 신뢰도와 반분 신뢰도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Rózycka-Tran et al., 2015) 한국판 제로섬 신념 척도 역시 단일 요인구조로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판 제로섬 신념 척도의 타당도 분석 결과, 국외연구 결과(Rózycka-Tran et al., 2015)와 다르게 사회적 신뢰와 한국판 제로섬 신념 간의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신뢰 중에서 타인이 나를 이용하기보다는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는 공정성 인식과 제로섬 신념은 부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대학생 집단과 대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차이를 보였는데, 대학생 집단에서는 전체 사회적 신뢰, 일반적 타인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인식 영역이 제로섬 신념과 부적 관계를 나타냈지만, 일반 성인 집단에서는 전체 사회적 신뢰 및 세 가지 하위 영역 모두 제로섬 신념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 집단에서는 제로섬 신념이 높을수록 사회적 신뢰 수준을 낮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 성인 집단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신뢰와 제로섬 신념 간의 관계를 연령이나 직업이 조절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Rózycka-Tran 등(2015)의 연구에서는 오직 대학생 집단만 포함하였기 때문에 연령이나 직업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국가 지니계수가 사회적 신뢰와 제로섬 신념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연구에서는 지니계수가 높아질수록 제로섬 신념과 사회적 신뢰의 관련성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로섬 신념과 사회적 신뢰의 관계는 복합적인 관계를 맺으며, 다른 변인에 의해 조절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 타인(“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제로섬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해서 사회적 신뢰 정도를 다르게 인식할 가능성도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로섬 신념과 사회적 신뢰의 관련성이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신뢰를 살펴볼 경우, 제로섬 신념과 외집단에 대한 사회적 신뢰 간에 부적 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의 경우에는 전체 표본, 대학생과 일반 성인 집단 모두에서 제로섬 신념과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Rózycka-Tran 등(2015)의 연구에 포함된 34개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제로섬 신념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경제적 수준과 관련이 없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조금 더 상세히 분석해보면,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수준은 7점 척도에 3.95( $SD=1.21$ )로 나타나 대부분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을 평균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Rózycka-Tran 등(2015)의 연구에서 보고된 국가별 평균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을 살펴보면(표준편차는 보고되지 않았음), 본 연구와 동일한 7점 척도에 평균이 3.13에서 5.75로 더 다양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수준이 Rózycka-Tran 등(2015)의 연구대상자와 비교하였을 때, 연구대상자 간 차이가 비교적

작고 대체로 평균에 수렴하고 있어서 제로섬 신념과의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주관적 사회경제적 수준과 제로섬 신념 간 관계가 정말로 유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큰 차이가 없어서 두 변인 간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Rózycka-Tran 등(2015)의 연구와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에 더 공감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년들에게 자원 부족의 점화가 오히려 노인차별주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인영, 박혜경, 2021). 따라서 제로섬 신념과 사회경제적 수준 간의 관계는 Rózycka-Tran 등(2015)의 연구에서 보고된 것보다 더 복잡한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어서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를 단일 차원에서 살펴본 Rózycka-Tran 등(2015)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 문화 성향으로 세분화하여 제로섬 신념과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Rózycka-Tran 등(2015)의 연구에서는 개인주의 문화일수록 제로섬 신념이 낮고 집단주의 문화일수록 제로섬 신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화 성향과 제로섬 신념 간의 관계가 더 복잡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체 집단에서 제로섬 신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직적 개인주의와 수직적 집단주의 문화 성향과는 정적 관계, 수평적 집단주의 문화 성향과는 부적 관계로 나타났으며, 수평적 개인주의와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개인주의든 집

단주의든 대인관계에서 서열이나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수직적 문화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은(Singelis et al., 1995) 자원의 양이 한정되어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기고 지는 관계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평등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수평적 집단주의 문화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Singelis et al., 1995) 제로섬 신념을 덜 나타내고 자원의 양이 한정적이지 않거나, 상호호혜적인 자원 배분 방식이 존재한다고 믿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제로섬 신념이 수직적 개인주의, 수직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와는 수렴타당도를 나타내고, 수평적 개인주의와는 변별타당도를 나타냈다고 여겨진다. 이는 문화 성향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집단주의 문화 성향이든, 개인주의 문화 성향이든 수평적 가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지고, 수직적 가치를 높게 나타낼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남희은, 이미란, 배은석, 김선희, 백정원, 2014).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집단과 일반 성인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그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대학생 집단과 일반 성인 집단 모두에서 수직적 개인주의와 제로섬 신념은 정적 관계로 나타났고, 수평적 개인주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대학생 집단에서는 수평적 집단주의와 제로섬 신념이 부적 관계로 나타나고, 일반 성인 집단에서는 수직적 집단주의와 제로섬 신념이 정적 관계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이든 일반 성인이든, 집단보다 개인을 중요시하며 경쟁이나 서열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제로섬 신념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며, 대학생 집단에서 평등한 공동체를 지향할

수록 제로섬 신념을 덜 나타내며, 일반 성인 집단에서는 위계가 있는 집단을 중요시할수록 제로섬 신념을 더 나타낸다는 것이다. 두 집단에 나타난 이러한 차이는 대학생과 대학생이 아닌 성인 집단이 경험한, 세대나 조직 구조 문화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문화 성향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추가적인 분석을 했을 때, 일반 성인들( $M=4.69$ ,  $SD=.77$ )이 대학생들( $M=4.54$ ,  $SD=.67$ )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직적 집단주의 문화 성향을 보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에서도 대학생 세대와 부모 세대의 문화 성향을 비교하였을 때, 부모 세대가 대학생 세대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직적 개인주의와 수직적 집단주의 문화 성향을 나타냄을 보고하였다(고관우, 남진열, 2018). 즉,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위계적인 문화가 뚜렷하여 대학생보다 연령이 높은 일반 성인이 더 수직적인 집단주의 문화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학생들은 일상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로 수평적 집단주의를 경험하지만, 일반 성인은 위계가 있는 직장에서 수직적 집단주의를 더 많이 경험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두 집단에서 수평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와 제로섬 신념과의 관련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Rózycka-Tran 등(2015)의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다른 선행연구(구자영, 서은국, 2007; Borawski, 2018; Shin & Kim, 2018)에서 보고한 제로섬 신념과 사회비교 지향성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사회비교 지향성과 한국판 제로섬 신념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두 변인은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정된 자원을 두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고 인식할수록 자기성찰 지향적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민감하며 지속적으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성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자원 양의 한정이 되어 있어 남들이 더 가지면 자신은 필연적으로 덜 가질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면 타인과의 비교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Lyubomirsky & Ross, 1997), 비교를 통해 더 많은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적인 태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구자영, 서은국, 2007). 또한, 제로섬 신념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 경험을 마주했을 때, 상향비교를 통해 자신의 실패는 타인 때문이라고 여기고 사회적 관계에서 철회하거나 상대방에 대해 적대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Borawski,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국판 제로섬 신념 척도와 사회비교 지향성 간의 관계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맥을 같이 한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를 밝힌 본 연구가 가진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는 국내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국판 제로섬 신념을 타당화하여 추후 국내에서 제로섬 신념과 관련된 연구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국외에서는 정치적 양극화, 팬데믹, 사회적 차별과 편견, 기후 변화, 무역 전쟁 등 전 세계적인 도전과제에 직면하는 데 있어 제로섬 신념이 미치는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제로섬 신념과 관련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Fearon et al., 2021).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지금,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는 심리적 요소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한

국판 제로섬 신념 척도를 가지고, 제로섬 신념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 및 사회적 갈등·대립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만을 연구대상자로 포함하였던 Rózycka-Tran 등(2015)의 연구와 달리, 대학생과 대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 모두를 연구대상자로 포함하여 제로섬 신념과 다른 변인 간의 관계가 연령이나 직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대학생 집단에서는 Rózycka-Tran 등(2015)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제로섬 신념과 사회적 신뢰가 유의한 부적 관계로 나타났으나, 일반 성인 집단에서는 두 변인 간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처럼 제로섬 신념과 다른 변인 간의 관계가 다양한 조절변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힌 것이 이 연구의 의의라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 성향을 배타적인 하나의 차원으로만 살펴본 Rózycka-Tran 등(2015)의 한계를 벗어나 개인주의 문화 성향과 집단주의 문화 성향을 서로 독립된 차원으로 간주하고(한규석, 1996), 수직성과 수평성이라는 차원을 추가로 포함함으로써(Singelis et al., 1995) 제로섬 신념이 개인주의, 집단주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수직성과 수평성이라는 문화적 차원 역시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힌 점이 이 연구의 또 다른 의의로 여겨진다. 즉, 한 개인이 나타내는 개인주의 문화 성향과 집단주의 문화 성향은 평등성을 지향하나, 경쟁이나 서열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제로섬 신념과의 관계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의와 함께,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는 한국판 제로섬 신념 척도 타당화 연구로 제로섬 신념과 연구변인들 간의 관련성만을 살펴보았을 뿐, 어떤 변인들이 제로섬 신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제로섬 신념은 다른 변인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인과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실험연구나 종단연구 등을 통해 제로섬 신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나, 제로섬 신념의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로섬 신념 척도를 타인과의 관계 변인 위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적 건강 등과 같은 개인적 요소와의 관계는 살피지 못하였다. 하지만 제로섬 신념이 높을수록 덜 행복하며(구자영, 서은국, 2007; Rózycka-Tran, 2019; Shin & Kim, 2018),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한다(Borawski, 2018)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는 관계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건강의 측면에서도 제로섬 신념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제로섬 신념 척도를 타당화하였고, 본 연구 결과 대학생과 일반 성인 집단에서 제로섬 신념과 연구변인 간의 관계가 상이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로섬 신념 척도를 타당화하고, 제로섬 신념이 청소년들의 학업 경쟁이나 스트레스 등과 같은 변인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참고문헌

- 고관우, 남진열 (2018). 대학생세대와 부모세대의 문화성향이 복지의식과 국가의 복지책입인식에 미치는 영향. *비판사회정책*, 58, 123-158.
- 구자영, 서은국 (2007). 행복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믿음과 주관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1-19.
- 김기범 (1996). 대인관계 속에서의 도덕성과 내집단-외집단 구별: 문화비교 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희은, 이미란, 배은석, 김선희, 배정원 (2014). 대학생의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성향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8(2), 227-255.
- 류연규, 김영미 (2019). 한국사회 젠더갈등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6(4), 131-160.
- 박길성 (2011).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연금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2(1), 3-25.
- 서문기 (2004). 한국의 사회갈등 구조 연구: 갈등해결 시스템을 모색하며. *한국사회학*, 38(6), 195-218.
- 양계민 (2009).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59-79.
- 양계민 (2010).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경제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안녕감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111-128.
- 양혜승 (2015). 상대적 박탈감은 언제 발생하는가?: 등장인물의 특성 및 수용자 개인의 속성이 상향비교 감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9(6), 137-171.
- 유주연, 안현의 (2020). 성인초기 남녀의 성차별 메타-인식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유형별 성역할갈등, 이성과의 거리감, 성차별 논쟁에 대한 지지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6(4), 351-378.
- 이인영, 박혜경 (2021). 자원 부족이 청년세대의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2), 139-165.
- 전유정 (2016). 범죄뉴스의 선정성과 책임귀인이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유석, 오유진, 문유진 (2015). 대학생의 노인세대 인식: 세대갈등, 노인의 기여, 노인복지정책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5), 228-241.
- 한규석 (1996). 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 연구: 사회심리학에서의 문화비교 연구: 현황 및 세계화 속의 과제. *한국심리학회 동계연구세미나*, 1, 5-58.
- Borawski, D. (2018). The loneliness of the zero-sum game loser. The balance of social exchange and belief in a zero-sum game as predictors of loneli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5, 270-276.
- Bosson, J. K., Vandello, J. A., Michiewicz, K. S., & Lenes, J. G. (2012). American men's and women's beliefs about gender discrimination: For men, it's not quite a zero-sum game. *Masculinities and Social Change*, 1(3), 210-239.
- Esses, V. M., Jackson, L. M., & Armstrong, T. L. (1998). Intergroup competition and attitudes

- toward immigrants and immigration: An instrumental model of group conflict. *Journal of Social Issues*, 54, 699-724.
- Essess, V. M., Dovidio, J. F., Danso, H. A., Jackson, L. M., & Semanya, A. (2005). Historical and modern perspectives on group competition. In Crandall, C. S. and Schaller, M. (Eds.), *Social psychology of prejudice: Historical and contemporary issues* (pp. 97-116). Lawrence, KS: Lewinian Press.
- Fearon, P. A., Götz, F. M., Serapio-García, G., & Good, D. (2021). Zero-sum mindset and its discontents. *Social Macro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1, 1-49.
- Forsyth, D. R. (1999). *Group dynamics* (3rd Ed.).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Gibbons, F. X., & Buunk, B.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29-142.
- Lyubomirsky, S., & Ross, L. (1997). Hedonic consequences of social comparison: A contrast of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6), 1141-1157.
- Reeskens, T., & Hooghe, M. (2008). Cross-cultural measurement equivalence of generalized trust: Evidence from the European Social Survey (2002 and 2004). *Social Indicators Research*, 85, 515-532.
- Rózycka-Tran, J., Boski, P., & Wojciszke, B. (2015). Belief in a zero-sum game as a social axiom: A 37-Nation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6(4), 525-548.
- Rózycka-Tran, J., Piotrowski, J. P., Zemojtel-Piotrowska, M., Jurek, P., Osin, E. N., Adams, B. G., ... & Maltby, J. (2019). Belief in a zero-sum game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35 countries. *Current Psychology*. doi: 10.1007/s12144-019-00291-0
- Ruthig, J. C., Kehn, A., Gamblin, B. W., Vanderzanden, K., & Jones, K. (2017). When women's gains equal men's losses: Predicting a zero-sum perspective of gender status. *Sex Roles*, 76(1-2), 17-26.
- Sherif, M. (1966). *Group conflict and co-operation: Their social psycholog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Shin, J., & Kim, J. K. (2018). How a good sleep predicts life satisfaction: The role of zero-sum beliefs about happiness. *Frontiers in Psychology*, 9, 1580.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P. S.,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3), 240-275.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Press.
- von Neumann, J., & Morgenstern, O. (1944). *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논문 투고일 : 2021. 06. 03  
1 차 심사일 : 2021. 06. 07  
게재 확정일 : 2021. 07. 04

## The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Zero-sum Belief Scale

Ju-Ri Joeng

Department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zero-sum belief scale among a sample of Korean adults. The original scale was developed by Różycka-Tran, Boski, and Wojciszke (2015) based on the Belief in a Zero-Sum Game (BZSG) model. A total of 508 participants (252 college students and 256 non-student adults) completed an online survey comprised of the scales of zero-sum belief, social trust,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individualistic-collectivistic tendencies, and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Results of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dicated that zero-sum belief scale has one factor.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zero-sum belief scale was good. The Zero-sum belief scale did not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social trust and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However, the scal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vertical individualistic and vertical collectivistic tendencies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horizontal collectivistic tendencies.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zero-sum belief and horizontal individualistic tendencies, bu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zero-sum belief and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However, the results from the college student sample and the non-student adult sample were different. Lastly, this study could facilitate future research on zero-sum belief in South Korea, and future studies are needed to reveal the predictors and effects of zero-sum belief.

*Key words* : zero-sum belief, social trust, socioeconomic status, individualism-collectivistic tendency,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